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부안군 선정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022년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권의협 부안군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유공자인 이수지 주무관(부안군청 재무과)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과 조달시책에 기여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신장을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부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선정됐다.

부안군은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2022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공자인으로 선정된 이수지 주무관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조달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 받았다.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발전을 위해 혁신한 기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밀씀을 드린다. 조달청에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소중한 생명 살는 소방안전교육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문화조성을 위해 연중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추진 내용은 '연령·대상별 특성 고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환경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청소년 대상 미래소방관 직업 체험 및 인문학 조기정착,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교육대상자의 나이와 직업,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안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알아두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안전교육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육 신청은 전주시 덕진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완산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맞춤안내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신규 의료급여를 취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 안내되는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회귀, 증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안내, 현금급여 지원제도(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입신출신진료비 등)', 의료급여 상한일 수 및 연장 승인 선택병원 제도, 의료급여 제한시유' 등 대상자가 의료급여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완산구는 대상자별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자료 우편발송 및 동영상교육, 맞춤형 유선안내를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지정된 접종관리대상은 개별방문 등 일차·맞춤형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완산구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자립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은 기자

"따뜻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기여"

임관 태광기업 대표, 전주 아동·청소년에 책상·의자 셋트 후원

전주관내 이동·청소년들의 학업을 돋기 위해 임관(주)태광기업 대표가 두팔을 걷어붙였다.

임관 대표는 그동안 전주교도소에 간식 및 음료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또 지역내 소외가정 이동·청소년들에게도 애정을 갖고 끊임 없이 지원하는 기업가로서도 정평이 나왔다.

임 대표는 9일 전주시 건강기증지원센터를 방문해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등록된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가정 자녀들에게 학업 열을 올려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의자 세트를 후원했다.

또한 그는 지역 어르신들을 누구보다 먼저 챙기기도 했다.

찾아오는 고객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생활마스크



또는 따뜻한 생활을 대접하고 관내 경로당 및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봄봄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의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주위를 살피며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임관 대표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편, 임관 대표는 전주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여기에 그는 보호관찰소 지원사업, 완산회 불우이웃돕기, 건강기증지원센터 다문화기정에 기자재 등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기업으로 ESC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임관(주)태광기업 대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나눔을 통해 더 나은 환경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상·의자 세트를 후원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8일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종환)와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손을 짚었다.

이날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3억1천여 만 원이 투입되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교육과 귀농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법규 및 지침에 의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게 된다.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들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だ"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자궁경부암 온열치료 병행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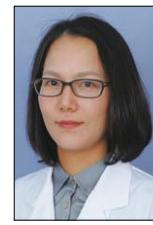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와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팀이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항암 화학 방사선 동시 치료와 같이 진행된 온열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논문은 'Modulated electronradiotherapy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n observational study of 95 patient'에 관한 것으로 종양 관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1월호에 게재됐다.

자궁경부암은 진행성 병기로 진단 받은 경우 수술 시행이 어려워 항암 방사선 동시 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선영 교수

단 당시 꿀반 등의 임파절 전이가 있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중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보다 항암 방사선 치료에 온열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반응도가 상승했고 재발률이 의미 있게 낮아짐을 보고했다.

이선영 조동휴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소 임파절 전이가 진단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반응도를 높이는데, 온열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왕은경 기자

이선영 조동휴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소 임파절 전이가 진단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반응도를 높이는데, 온열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왕은경 기자

JB청년회, 남원시 학교밖청소년들 위한 장학금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사)기독교청소년협회(CY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일신)는 JB청년회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0만원을 지원 받았다.

JB청년회(회장 강민호)는 남원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물품 후원, 매월 2회 남원시 관광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JB청년회 강민호 회장은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일신 센터장은 "지역의 후배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준 JB청년회에 감사하다"며,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린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문을 연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자격취득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남원시 종로 72, 3층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63-638-1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김제지부, 김제시에 한돈 500kg 기부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지부장 강정우)는 9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500kg(40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강정우 지부장은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하는 한돈협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수 부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청년(청소년)물결 도이는 청년 29명, 청소년 22명으로 구성되어 청년과 청소년이 동행하는 단체이며, 매월 1회 전북을 돌아다니며 시립과 자연을 위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과 다양한 나눔봉사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제출신 부위원장 임동숙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올해 김제시에 발대식을 개최하여 활동범위를 더욱더 넓혀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용카드공헌재단-우리카드, 청소년 후원금 전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우리카드는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 여성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소녀들이 원하는 대로 키트'를 지원하기 위해 4,895만원을 마련해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520개 키트를 제작해 9일 전라북도자립지원단기관에게 전달했으며, 전달된 키트는 지역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여성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